'2002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김이현 (주)아티포트 회장

"부적격 업체 단호하게 퇴출시켜야"

"그동안 대형 업체 위주로 시상되던 큰 상을 중소 업체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이 중소 업체와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문건설인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건설의 날' 기념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주)아티포트 김이현 회장의 수상 소감이다.

김이현 회장은 국내 실내건축전문업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년 이상 전문건설업체인 아티포트를 경영해 오는 가운데서도 실내건축학회와 실내환경공사협의회 등의 발족을 주도하였고, 실내건축기사 제도를 입안해 국내 실내건축공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내건축 전문 업체로는 처음으로 1992년 알제리 힐튼호텔 공사에 참여해 해외 진출의 길을 열기도 했다. 알제리에서 자신감과 기술력을 키운 아티포트는 이후 리비아, 이집트, 베트남 등지에서 병원, 호텔 건물의 실내건축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김이현 회장은 전문건설업 발전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4년 제4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업종별 협의회 총회장에 취임한 뒤 그는 토공 등 22개 업종의 특성에 따른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하였다. 이어 1997년부터 지금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부적격 업체 퇴출 작업 선도,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건의 등 전문건설업계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앞장서 왔다.

부적격 업체 퇴출에 대한 김이현 회장의 의지는 단호하다. 일반건설업이든 전문건설업이든 간에 건설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건설 시장의 정화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일반건설업체 수가 1만 2,000여개, 전문건설업체가 3만 5,0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술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 면허가 무제한으로 발급되고 면허 대여자나 일괄 하도급자 등 불법 업체들마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건설업을 하는 업체들이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정 선수 투성이인 게임에서 룰을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룰을 지키는 팀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이현 회장은 이러한 부적격 업체를 건설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조처와 업계 스스로의 정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건설업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그는 핸드폰 하나로 공사를 수주해 일괄 하도급함으로써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벌금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현행 법규를 개선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기술과 경험을 갖춘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기술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 시공업자와 중개업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간판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는 강력한 단속과 제재 조치를 통해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김이현 회장은 일반과 전문 건설업 간의 협력 관계 강화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일반과 전문 업체가 대립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필요한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부회장으로서 '건설산업선진화기획단' 발족을 선도한 것도 전체 건설업계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윗논에 물이 차야 아랫논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일반건설업체가 물량 부족으로 힘들어하면 전문건설업체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일반과 전문 업체가 협력해야만 기술 개발도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상호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nikore.kr